

도미니카공화국선교소식 (2020 년 2/4 분기)

2020 년 6 월 25 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19 는 하나님의 선교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사람들의 출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미니카공화국도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외국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 수개월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고, 통행금지를 6.27(토)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 년 6 월 24 일 기준 코로나 상황은 확진자 27,936 명, 사망자 675 명, 격리해제 15,551 명으로 인구대비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압병실 1 일 사용비용은 미화로 약 1,000 불 가량입니다.





6 월 24 일자 Listin Diario 신문에서
운영위원회 모습

제 2 산토도밍고 교회

그리고 지난 5 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는 잠정적으로 7 월 5 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는 코로나 이름을 가진 아비나데르 코로나(Abinader Corona)가 56%의 지지율로 1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총회주일학교 교재 사역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속한 개신교 교단 가운데, 주일학교 교재를 총회 차원에서 직접 집필하고 전국교회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가 2015 년에 처음으로 총회주일학교 교재편찬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위원들이 성경공부 교재(주일학교 공과)를 집필하여 현재까지 4 권 세트(교사용, 학생용/청장년용, 중고등부용, 아동부용, 유치부용)를 전국교회와 총회에 속한 학교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5 권 세트를 위원장인 장선교사와 집필위원들이 코로나 환경 가운

데서도 온라인 대면회의 등을 하면서 열심히 집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 사역입니다.

총회장학위원회 위원장인 장선교사와 부위원장 벨슨 목사님, 서기 마리아 목사님은 장학생 돌봄 사역을 위해서 자주 회의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환경 가운데서 장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6월 말까지 장학생 평가회 자료를 총회 사무실에 제출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가 단절기 때문에 이번 학기 성적표는 한 학년이 마치는 시기 이후인 8월 말-9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총회장학위원회 학년말 평가회도 7월말로 연기했습니다.

대학생 장학생 중 암발 샤리나(Ambal Sharina T.)의 편지를 함께 나눕니다.

장학생 감사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십니다. 저는 암발 샤리나(Ambal Sharina T.)입니다.

나이는 21 살이고 바라오나(Barahona) 도시의 USAD 대학에서 Orientacion 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렵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저는 엘리아(Elias Feliz Perdomo)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제 2 Barahona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제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고 현재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품과 대학에서 필요한 비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저희 가정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도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잘 지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요즘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서로 보호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분께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Ambal Tercero Mendez

2020 년 6 월 14 일

Barrios Cacique
Barahona, Rep. Dom.

Dios es bueno todo el tiempo. Soy Ombal Shorino Ferrero Méndez, tengo 21 años y estudio Orientación en la UASD de Barahona. Vivo con mi mamá, abuela y hermanas. Mis papás son divorciados. Estos meses han sido muy difíciles al tener que convivir con este virus tan contagioso, y donde la economía de cada hogar se ha puesto muy desequilibrada, debido a la paralización de la misma.

Pertenezco a la 2da Iglesia Evangélica Dominicana de Barahona, mi pastor Elias Feliz Perdomo. Desde niña por decisión propia me he aferrado a la fe de Jesús y me he congregado, he sido líder juvenil también.

He tenido la bendición de recibir esta beca que tanto me ha ayudado no solo con mis utensilios y gastos de la universidad, sino que en estos meses difíciles me ha permitido colaborar en mi casa con los gastos alimenticios de la familia y míos. A pesar de todo, Dios siempre toca corazones bondadosos para ayudar a los demás. Gracias a Dios mi familia y yo estamos muy bien, estamos cada uno cuidándonos y protegiéndonos para no contagiarnos del virus.

Siempre mantengo mi fe firme, pues es la única que nos da esperanzas en todo momento. Peseo que el Señor Dios bendiga sus velos hoy y siempre!

Ombal Ferrero Méndez
24/06/2020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 19 환경 가운데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늘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종성 목사, 장은경 선교사 드림